

돌아봄과 내다봄

대화를 위한 대화모임

2025.12.18.(목)
15:00-18:00

평창동 대화의집
종로구 평창6길 35

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명진 간사 emkg@hanmail.net
크리스챤아카데미 최고원 연구원 tagung@daemuna.or.kr



대화모임

•분야별 사회와

일자: 2025년 6월 19일(일)
장소: 대화의집 주제:

2020-2025
대화모임 경과발표

발제

지형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채수일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모임]

“돌아봄과 내다봄”_대화를 위한 대화모임

-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챤아카데미
- 발간일 2025년 12월 18일(목)
- 편 집 이명진
- 디자인 최고권
- 문 의 이명진(cemk@hanmail.net), 최고권([tagung@daemuna.or.kr](mailto>tagung@daemuna.or.kr))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화모임 순서 및 내용

■ 사회 - 송진순(이화여대)

■ 내용

브리핑.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모임 연혁

4p

- 이명진(기윤실 간사)

발제1. 대화를 통해 본디 에큐메니즘을 추구해야

14p

- 지형은(기윤실 이사장)

발제2. 무엇을 할 것인가?

16p

- 채수일(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 전체 토론

패널 참가자 명단(가나다 순)

크리스챤아카데미

강선구(강남향린교회 담임목사)

강세희(한백교회 전도사)

김석원(NCCK 부회장)

배현주(WCC 기후정의위 부위원장)

이삼열(전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철(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한세욱(청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기윤실 사무처장)

박제민(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

신동식(기윤실 공동대표)

이상민(기윤실 공동대표)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기윤실 이사)

[브리핑]

기윤실&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모임 연혁

*표기된 소속 및 직함은 행사 당시 기준입니다.

1. 2020년 상반기 대화모임

- 주제: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 일시/장소: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6시 / 대화의집(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35)

- 사회: 백종국(기윤실 이사장)

-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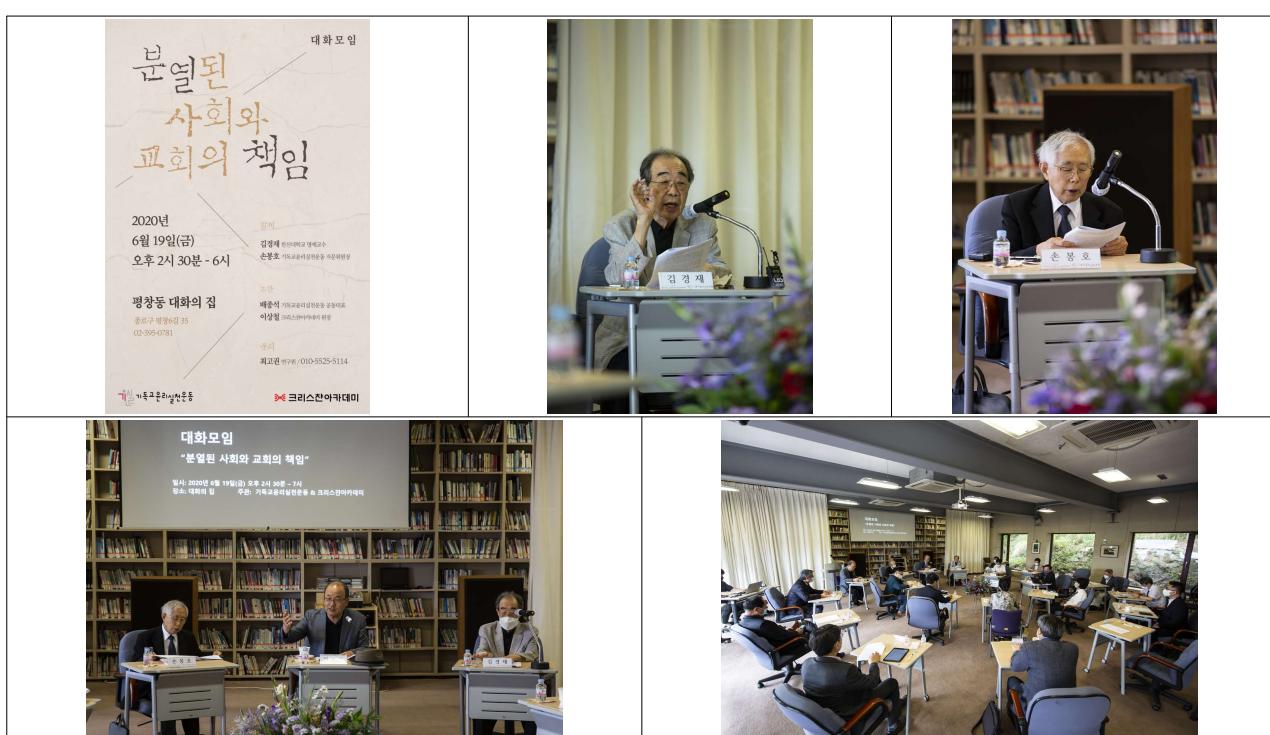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_ “허구적 이념틀에 갇힌 진보-보수 틀을 깨고 넘어설 수 있을까?”

손봉호(기윤실 자문위원장) _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역할”

- 논찬: 배종석(기윤실 공동대표), 이상철(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 패널: 16명(강호숙, 김종구, 김형국, 박성철, 박종화, 백소영, 송태근, 안재웅, 이삼열, 이홍정, 장상, 정병오, 조성돈, 조주희, 채수일, 하성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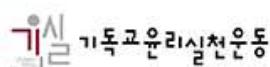
- 주요내용: 한국의 보수적, 진보적 기독교의 특징, 코로나 팬데믹 정국과 2020년 4·15 총선 결과 성찰, 극도로 분열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등



*2020년 11월 30일(월) 사단법인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민세상' 사회통합부문 공동수상



사회통합 부문 공동수상자



크리스챤아카데미
Korea Christian Academy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로 해군제와 평화이론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국제정치를 복합주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연구하여 「복합제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선시대 와·공생복합 네트워크」, 「민환의 세계정치」,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 등의 저서를 통해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 또한 타산 정약용 등 근대 삼학파에서 안중홍·동복학파·근대 지식인들의 국제관계 인식을 조망한 「역사속의 절은 그들」 저술을 통해 안재홍 연구에도 기여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수상자 지인 등 사전 초청된 50명으로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저녁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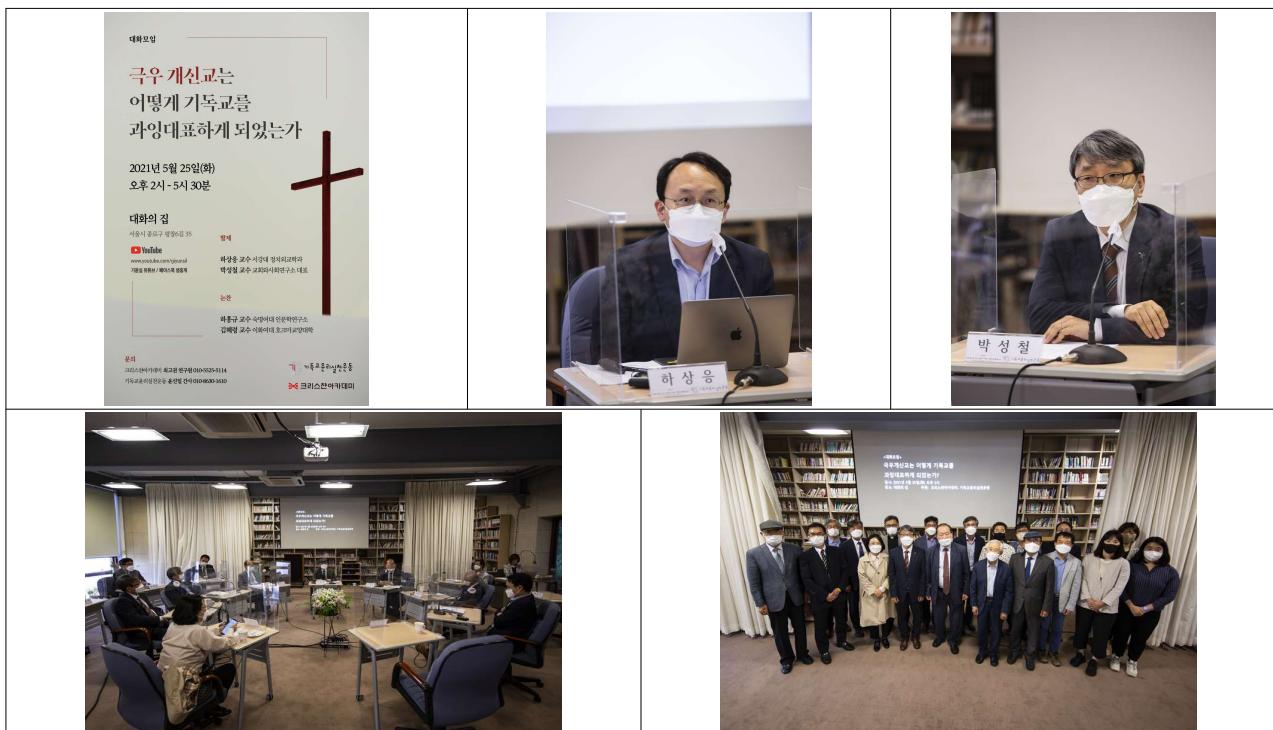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최 |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후원 | 대한항공 펑택시 특별후원 | 조선일보

2. 2021년 상반기 대화모임

- 주제: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대표하게 되었는가
- 일시/장소: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 대화의집
- 사회: 이상철(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 발제:
 - 하상웅(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였나?”
 - 박성철(교회와사회연구소 대표) “보수 교회의 극우화에 대한 복음주의적 진단과 대응”
- 논찬: 하홍규(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김혜령(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 패널: 14명(권혁률, 박정우, 박태식, 배현주, 백종국, 손봉호, 신동식, 양권석, 이상열, 이상민, 정병오, 조성돈, 조혜진, 채수일)
- 주요내용: 미국 복음주의의 현상(트럼프의 등장과 포퓰리즘,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과 한국교회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배타주의, 반공주의, 차별의 정당화) 등



3. 2021년 하반기 대화모임

- 주제: 대선 정국, 한국 기독교

- 일시/장소: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 대화의집

- 사회: 하상웅(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배덕만(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_“대통령 선거와 한국 개신교: 그 역사와 성찰”

김선욱(승실대학교 철학과 교수)_“대선 정국과 한국의 교회들”

- 논찬: 장동민(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학 교수)

- 패널: 13명(구교형, 김정태, 백종국, 신동식, 양권석, 오지석, 이병주, 이삼열, 이상민, 이상철, 정병오, 조성돈, 채수일)

- 주요내용: 한국 대통령 선거 역사와 기독교의 모습과 성찰, 선거 정국에서 바람직한 개신교 모습 제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한 개신교 모습 등



4. 2022년 상반기 대화모임

-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_‘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
- 일시/장소: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 대화의집
- 사회: 조성돈(기윤실 공동대표)
- 발제:
 -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후마니타스 대표) “한국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모든 정부에 바란다”
- 논찬: 송진순(이화여대 교수), 고세훈(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명예교수)
- 패널: 19명(구교형, 구애림, 박태식, 배현주, 백종국, 백하나, 신동식, 안재웅, 양권석, 이봉수, 이삼열, 이상민, 이상철, 이희자, 조성실, 진빈, 차윤경, 채수일, 천윤석)
- 주요내용: 정치 양극화 문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대통령 중심 정치, 정치 다원화의 필요성, 새 정부에 대한 제언(정치적 내전 종식, 장기적 국가과제의 연속성 보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 탈물질 사회로의 전환) 등



5. 2022년 하반기 대화모임

- 주제: 한국 개신교와 민주주의 총평_반성과 성찰로 나아감
- 일시/장소: 2022년 12월 5일(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 사회: 김민아(기독교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발제:
 - 백종국(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기윤실 이사장) _ "한국개신교와 민주주의"
 -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_ "한국 민주화의 발전과제"
- 논찬: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조성실(시사평론가,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패널: 14명(김현아, 박민중, 박종화, 서기정, 손봉호, 신동식, 안재웅, 윤신일, 이상민, 이상철, 이승렬, 전진형, 채수일, 추선희)
- 주요내용: 한국개신교의 보수적 행동주의, 민주주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경제적 민주화 문제, 사회적 민주화의 과제 등



6. 2023년 상반기 대화모임

- 주제: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와 기독교

- 일시/장소: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5시 30분 / 대화의집

- 사회: 김현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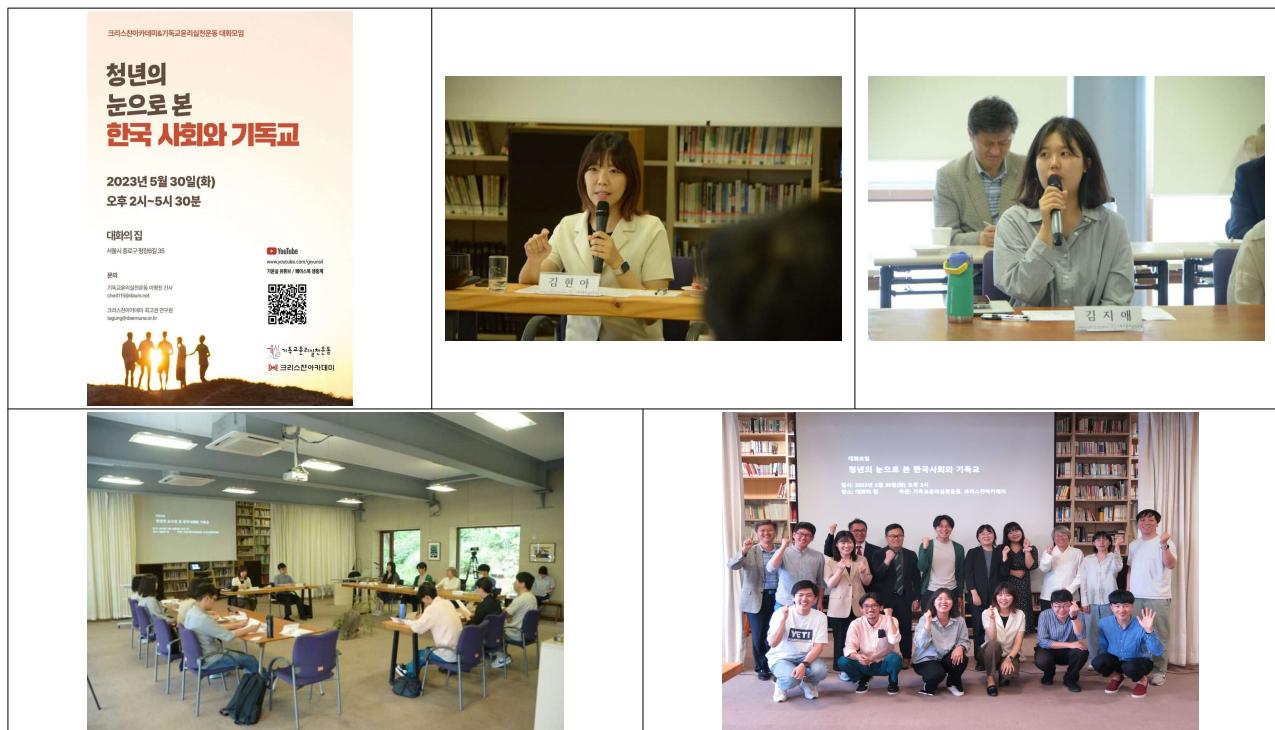
- 패널:

강세희(한백교회 전도사), 김대현(청년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자은(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김지애(고난함께 팀장), 김하나(향린교회 전도사), 김현아(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장) *사회 겸 패널, 문형욱(기후위기독인연대 공동대표), 서기정(시대전환 여성위원장), 윤진영(청년부 목사), 이광호(KSCF 대학부 간사), 이영우(청년의뜰 간사), 임지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간사)

장철순(기독청년아카데미 사무국장, KSCF 대학부 간사), 하성웅(EYCK 총무)

- 배석: 2명(신동식, 이상철)

- 주요내용: 활동가로 지내며 경험한 최고의 순간(힘이나는 순간), 청년과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정치, 성평등, 교회와 자본, 연대, 평화 등



7. 2023년 하반기 대화모임 주관 세미나

- 주제: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 사회: 김상덕(기윤실 상집위원, 연세대 강사)
- 발제:
 - 김호기(연세대 교수) _ “회귀한 이념논쟁 속 한국교회의 방향”
- 논찬:
 -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
 - 조성실(시사평론가,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홍문기(총신대 역사교육과 교수)
- 배석: 4명(신동식, 이상철, 이의용, 채수일)
- 주요내용: 이념의 개념과 이념구도, 이념논쟁 분석과 한국교회의 방향, 극우개신교 부활과 이유 등



8. 2024년 대화모임

- 주제: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일시/장소: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분-오후 12시 10분 /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 사회: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 발제:
 - 이은경(희망제작소소장) _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민생"
 -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_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라는 22대 국회"
 - 천윤석(변호사, 기윤실 정치운동전문위원) _ "기독시민 제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치"
- 패널: 12명(강세희, 김예원, 김현아, 박제민, 신동식, 신하영, 이삼열, 이상철, 정병오, 정유현, 조성돈, 차해경)
- 주요내용: 제22대 총선 결과 분석, 민생관련 법안 현황과 거부권 문제, 민생정당과 민생정치, 지역인구 감소, 기후정책 점검, 탄소중립 달성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협치, 입법권 침해, 국정통제 권한문제 등



[발제1.]

대화를 통해 본디 에큐메니즘을 추구해야

지형은(기윤실 이사장)

1. 정신적인 독선과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만남은 유익하다. 의견이 상충하는 양자 또는 몇 집단이라도 서로 만나서 의견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2. 크리스천아카데미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진행해 온 그간의 대화 모임은 한국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 유익했고, 이 모임을 문명사적 전환기인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에큐메니칼’은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 중에서 진보 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에큐메니즘의 본디 뜻은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기독교 전체와 더 나아가서 사회와 세상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시고 그분이 이 집을 다스리신다. 이 집 전체와 연관된 단어가 에큐메니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서 쓰이는 에큐메니칼 또는 에큐메니즘은 아주 지독하게 축소되었다. 이 개념을 본디 뜻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4. 에큐메니즘의 본디 뜻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에큐메니칼 영역의 중심에 있는 크리스천아카데미와 ‘복음주의권’의 중심에 있는 기윤실의 대화는 참으로 유익하다. 한국 기독교 전체 영역을, 단순하기는 하지만,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자와 만날 수 있는 복음주의권으로 구별해 보면 진보와 복음주의권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긴요하다.
5. 이 두 영역의 대화를 크리스천아카데미와 기윤실의 대화 모임이 씨앗이 되어 다른 모임 혹은 단체들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의제 선정과 대화의 방식, 그리고 인적 관계를 지혜롭고 적절하게 선용하면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보수 쪽이라고 보이는 단체 중에도 대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대화 모임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논의가 필요한 의제는 사실 기독교 외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 서구 선진국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지구촌 모든 지역의 기독교 단체들과 단계적으로 대화 모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는 오늘날의 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소통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기독교 영역에서 진행되는 이런 대화 모임을 의제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독교 외의 일반 영역으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복음이 환경, 경제, 정치, 교육, 법조, 문화 등 인간 삶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 관련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의제나 활동을 일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하다.

8. 이런 모든 활동에서 성서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 성경을 중심에 놓을 때 기독교 영역의 공통분모가 생긴다. 진보에서 보수까지 성서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는 둘째 문제다. 중요한 것은 성서를 중심이 놓는다는 것이다. 관점과 해석, 기도와 행동의 방향이 달라도 괜찮다. 일단 함께 서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된다. 성경의 가르침이 인간의 삶과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현재진행형으로 작동한다는 것 자체에는 진보든 보수든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9. 중장기적인 생각도 해본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 기구나 모임들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역사의 경험으로 보면 인간 삶의 어느 영역을 이끄는 모임이나 운동이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이럴 때 그 모임과 운동의 본디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향으로 대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10. 인류는 지금 21세기의 사반세기를 지나며 문명사적 전환기를 겪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는 기독교 복음의 관점은 무엇인가? 각 시대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 현상이라면 오늘날이야말로 그런 요구가 절절하다. 크리스천아카데미와 기윤실의 대화 모임이 이런 전망까지 품고 대화 모임을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방향의 정신적 전망과 지혜로운 기획, 기도와 행동이 에큐메니즘의 본디 뜻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본다.

[발제2.]

무엇을 할 것인가?

채수일(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1. 전역사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2020년 11월, 제11회 민세상(사회통합부문)¹⁾을 공동으로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의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 개신교와 정치' 등을 큰 주제로 삼아 정기적인 대화모임을 공동 개최해 왔습니다. 두 단체는 이른바 예반 젤리컬(기윤실)과 에큐메니컬(크리스챤아카데미) 진영을 대표하여 상호 협력하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2021년 상반기: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대표하게 되었는가?

2021년 하반기: 대선 정국, 한국 기독교.

2022년 상반기: 새 정부에 바란다.

2022년 하반기: 한국 개신교와 민주주의 총평.

2023년 상반기: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와 기독교.

2023년 하반기: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

2024년 상반기: 기독시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이 대화모임들은 평창동 대화의 집, 한국기독교회관 등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 진영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균형 잡힌 시각을 모색하려 노력해 온 것이 특징입니다.

올 해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생명 중심의 인간화'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지난 12월 1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경미(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 박명림(연세대교수, 정치학), 박은정(이화여대명예교수, 법학), 이정배(감신대명예교수, 신학), 조천호(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조효제(성공회대 명예교수, 사회학), 한윤정(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사 등 7인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생명중심의 인간화 선언'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생명중심 인간화 선언'은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1970년대부터 '성육신' 신학을 바탕에 두고 추구해온 '인간화' 가치를 변화된 시대의 도전을 반영하여 다시 정의한 담론입니다. '생명중심 인간화 선언'은 먼저

1)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이자 해방 정국의 지도자였던 민세 안재홍(1891-1965)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사학자로서 항일운동을 이끌었고, 9차례에 걸쳐 7년 3개월간 옥고를 치른 대표적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였다. 민세상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반생명적 사회를 성찰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시키고 끝없이 성장하려는 태도가 사회위기와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지적합니다. ‘경제성장과 개인적 부의 축적을 국가공동체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가 결국 기술발전과 수익성을 들어 전쟁과 살육의 도구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핵폐기물이 미래 세대에 끼칠 해악임을 알면서도 원자력발전을 지속하며,’ ‘기후위기도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제품 개발의 기회로만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동시에 생명의 권리를 가장 크게 침해당하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 사회적 약자(특히 농민과 이주노동자), 비인간 생명’(가축, 야생동물 등)의 고통에 주목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런 반생명적 사회를 생명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선언’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자각과 실천’, ‘소박한 삶의 실천’, ‘상호성의 공공영역의 복원’, ‘생태적 거버넌스 구축’, ‘사회정의와 기후생태정의를 융합한 생명공동체’, ‘대화와 공존, 상생과 통합을 위한 협정개혁과 연합정치’, ‘현재의 생활양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비인간에 대한 확장된 상상, 비인간 생명에의 공감과 연민’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제안도 있습니다. 선언은 ‘종교인들이 생명의 가치와 공공성에 집중하여 생명 중심의 인간화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까닭은 오늘의 ‘종교가 개인의 성취를 기원하는 데만 집중하며, 심지어 일부 종교인들이 증오와 분열을 통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인의 전문가들이 크리스챤 아카데미 60년 대화의 역사를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화운동의 주제로 제시한 ‘생명중심 인간화’는 오늘 인류와 우리나라가 당면한 생명파괴현실과 대안 제시에 있어서 매우 시사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기윤실과 함께 논의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2. 당면한 과제

그동안 기윤실과 크리스챤 아카데미가 함께 해온 대화모임의 주제들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는 크게 ‘신뢰회복’, ‘사회통합’, ‘미래세대’, ‘공공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윤실은 교회의 투명성(운영의 민주화, 재정투명성 등) 확보와 윤리적 삶의 실천을 통한 생활신앙의 회복을 노력해왔습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대화운동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 교육이 교회 내부에서부터 제기되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독교 극우집단과 미국 극우기독교 집단과의 관계, 특정 기득권층의 이권 카르텔(패거리) 문화의 극복, 혼들리는 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른바 K-Culture,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막은 이른바 ‘응원봉 혁명’, K-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K-방산’,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으로 기대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는 평화와 창조질서의 보전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근본가치와 충돌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파국은 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식의 전환, 탄소절감을 위한 개인적, 교회적 실천은 물론, 정책적 대안의 제시와 실현을 촉구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를 국제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계시민의식에 기반한 연대를 기독교(종교)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도 모색해야 합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교회가 당면한 과제의 지구적 특성상 ‘보수 대 진보’, ‘에반젤리칼 대 에큐메니칼’, ‘복음화 대 인간화’, ‘영혼구원 대 사회구원’, ‘기술 대 가치’ 등의 이원론적인 대응은 이미 낡은 것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도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세계와 교회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신앙과 신학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윤실과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추구하는 가치나 활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같이 할 주제와 프로그램은 논의를 통해 더 넓고 깊이 모색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대화 모임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참가자들을 청년, 여성 중심으로 구성하고, 한 번은 한국교회 내부 문제를, 다른 한 번은 한국사회, 세계 문제를 주제로 한다.

대화 모임의 내용을 뚫어 e-book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영역하여 ‘국제공공신학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적 논의를 세계에 알린다.

MEMO